

제5차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보고

APHC 200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 영 선

우리 일행이 제5차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 시에 도착한 것은 3월 초, 봄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 때는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었고 아직 찬 바람이 부는 때였다. 일본 역사상 유명했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영웅들은 아직까지도 오사카 시의 나무나 바람, 건물들 속과 평화를 지키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오사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다.

숙소인 리가 로얄 호텔은 건물의 시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면에서도 가히 세계 일류 호텔 중의 하나였다. 또 학술대회 장소인 오사카 국제회의장의 바로 옆 건물 이어서 무척 편리 했다. 학회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300명 내국인 700명 등 약 1000명 이상이 등록했고 한국에서도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조직위원회를 기쁘게 해 주었다. 학회의 준비는 비교적 간편하였고 비싼 일본의 물가 때문인지 아주 절제된 범위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시아 각국과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연자들을 초청하였고 plenary session을 거의 대부분 한 방에서만 진행하여 동시에 여러 방에서 진행되었던 2001년 대만 학회의 운영과 비교가 되었다. 한국에서 참석한 봉사자들 중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동안 영어로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곤란해 하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의 행사는 일본어로 진행되면서 동시통역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회 이틀째 저녁에 진행된 'Culture night'에서는 한국인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 서울의 찬가 등의 노래를 합창하였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노래가 많은 외국인 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또 대회 기간 내내 학회장소로 사용된 강당 앞의 공간에 2005년 서울학회를 광고하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었고 대행사로 선정된 '인세션'에서 직원들이 동행하여 한복을 입고 홍보자료와 스티커 기념품을 나누어 주어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는 호스피스 방문의 수를 제한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방문을 하지 못한 점이었고 이는 조직위원회에서도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시찰을 시킬 만큼 잘 운영되는 호스피스의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 대회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온 많은 외국 인들과 우정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성과 중의 하나였고, 3005년 조직위원회로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서울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